

재가동 4일만에...한빛원전 3호기 또 멈췄다

냉각재 펌프 문제 생겨...원안위 관리능력 의문 제기

영광 주민들 "반대에도 강행하더니...불안감 증폭"

지난해 10월 방사능 사고 뒤 무려 177일간의 정비를 거쳐 재가동에 들어간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핵심설비 고장으로 4일 만에 가동이 정지되면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운영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비 기간 중 확인된 증기발생기 이상 징후에 따른 주민 반발에도 안전을 장담하면서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 3호기가 또 다른 핵심설비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오후 1시30분께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1대가 갑작

스럽게 정지하면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됐다.

냉각재 펌프는 원자로에서 뜨겁게 데운 냉각재(고온·고압의 물)를 순환시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증기발생기를 거쳐 온도가 떨어진 냉각재를 원자로로 순환시켜 원자로를 식히는데도 쓰인다.

한빛 3호기는 지난 10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12일 새벽 5시20분께 발전이 재개됐다. 이후 지난 15일에는 100% 출력 상태에 도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이날 갑작스럽게 멈췄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17일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으로 외부 환경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서 장기간 정비를 거쳐 가동에 들어간 한빛 3호기가 가동 4일 만에 또 다른 핵심 설비인 냉각재 펌프 고장으로 멈췄는데 있다.

원전은 통상 18개월 가동 후 2개월간 원전 설비를 예방정비 하는데, 한빛 3호기의 경우 무려 3배 이상 정비 과정을 거치고 규제기관 승인 아래 원전 가동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정비 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정비 과정에서 증기발생기는 물론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원전을 구성하는 핵심설비에 대한 점검이 모두 이뤄진다는 점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은 중심으로는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원전 설비 정비 능력과 규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원자력전문가는 "방사능 사고로 무려 6개월간 정비, 점검 과정을 거치고 가동된 원전에서 또 다른 핵심설비 고장으로 4일 만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원전 운영사와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한수원이 원전 운영 능력과 정비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규제 기관인 원안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인 핵없는세상광주전남 공동행동 박상은 운영위원장도 "한빛 3호기 재가동 승인 당시 원안위가 영광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호언장담했는데 4일만에 고장이 난 것은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영광주민이 공포에 떨지 않게 규제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 해질녘 19:06 | 달 뜨기 04:49 | 달 지기 17:25

주말 비소식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6/20	보성	맑음	3/21
목포	맑음	6/18	순천	맑음	6/22
여수	맑음	8/18	영광	맑음	5/19
나주	맑음	4/21	진도	맑음	5/19
완도	맑음	6/19	전주	맑음	4/19
구례	맑음	3/22	군산	맑음	4/17
강진	맑음	3/20	남원	맑음	3/19
해남	맑음	3/20	홍산도	맑음	8/15
장성	맑음	4/19			



바다 날씨

지역	면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남부	남서~서	1.0~1.5	남~남서	1.0~1.5	
남해	남서~서	0.5	남동~남	0.5	
서부	남서~서	0.5~1.0	남동~남	0.5~1.0	
면바다(서)	남서~서	0.5~1.0	남동~남	0.5~1.0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70
빨래	90

주간 날씨

날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날씨	☁	☁	☁	☀	☀	☀	☀
기온	8/23	14/18	11/21	9/21	8/22	9/22	10/23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 학생 20여명은 16일 오전 오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학교 폭력을 주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음의 눈으로 본 재판...판사·검사·피고인 등 체험 '열의'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 학생들

광주지방법원 모의재판 체험기

“마음으로” 보는 재판은 어떤 모습일까. 1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모의 재판’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재판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광주세광학교 시각장애 학생 2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 폭력을 주제로 가상 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체험 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사였다.

재판은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판·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역할까지 하며 추궁하거나 변호하는 등 실제와 흡사한 재판

과정을 보여줬다.

증인 역할을 맡은 학생은 아예 시나리오를 통째로 외우는 ‘열의’를 보였고 판사, 피고인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점자로 된 시나리오를 더듬으며 실제 상황같은 재판 분위기를 연출했다.

판·검사가 피고인·변호인·증인 말을 더 또렷하게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가 하면, 자신의 말을 잘 들리도록 하

기 위해 마이크에서 입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습은 실제 법원 재판 관련자들이 되짚어볼만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광주지법과 광주시교육청, 특수학교 등은 이날 행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나리오 점자화 작업 등을 세심하게 준비했다.

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은 “학교 내 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폭행 피해의 정도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남대 교수협·광양보건대 비대위

항소심 재판 앞둔 이홍하 엄벌 촉구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광양보건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홍하씨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등법원은 이홍하씨를 엄단, 서남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씨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이씨는 3개 고등학교와 서남

대학교를 포함한 5개 대학교 법인을 각각 따로 설립해 위장 운영하는 등 교육자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법원이 정당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7명 사상’ 담양 펜션 업주 징역 4년 선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황도휴집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 펜션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환 판사는 15일 펜션 내 바비큐장을 설치·운영하면서 소화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과실 등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 구의원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53)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재 사건과 관련,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처참한 결과 발생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잘못과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과실 등이 복합된 결과”라고 규정한 뒤 “피고인들은 과실이 가장 무겁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주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창사 63주년

“우리 함께 만들어요 살맛나는 으뜸 서구”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황금들녘과 석양 노을이 비경인 서창 들녘 낙조

아생화, 장미, 분수가 어울어진 풍림호수

자연과 함께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